

재정 조기집행 상반기 결산 앞두고

광주시 산하기관 긴급입찰 남발

수목 이식 등 급하지 않은 사업까지 주말 낸 닷새 공고… 공정성 시비도

광주시 산하기관들이 재정 조기집행 상반기 결산을 앞두고 무더기 긴급입찰에 나서고 있으나 수목 이식이나 전등 교체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까지 포함해 ‘남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고기간이 일반입찰(7일)보다 짧은 긴급입찰(5일)의 서류제출 기간에 주말까지 끼어 있어 재정 조기집행의 혜택을 받아야 될 지역업체들이 입찰 정보를 제 때 파악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일부 기관들은 아예 공고기간을 더 단축하기 위해 같은 장소, 같은 성격의 공사를 분리 발주해 소액 수의계약입찰에 나서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발주한 9건의 공사 중 긴급입찰은 6건에 달

했다. 이를 공사는 4~9일 사이 입찰서류 접수와 집행을 거쳐 사업자가 결정된다. 시 산하기관들이 이를 공사를 긴급입찰에 부친 것은 이달 말까지 선급금을 지급해야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광주공원관리사무소는 남구 향교길 인근 수목재·이식, 가지치기를 골자로 한 가초금액 2억7천800만 원의 ‘폐적한 공원환경조성공사’를 긴급으로 발주했다.

하지만 조경업체 등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여름철에 하기에는 부적절하며 지역업체들은 입찰 사실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한 조경업체 관계자는 “보통 시에서 입찰을 하면 업체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지만 상당히 큰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업체가 대부분이었다”며 “서류제출 기간도 주말이 끼어 있어 입찰을 전문적으로 하는 외지 기업들이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사무소는 또 같은 날 광주공원 노후 편의시설을 교체한다며 기초금액 1억6천300여 만원의 공사를 긴급 입찰로 발주하기도 했다.

시는 2010년까지 광주공원에 아시아문화커뮤니티 문화공원과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녹지면적 확대 등 전반적인 공원 리모델링에 나서기로 해 이번에 발주한 공사와 ‘중복’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4년 초 준공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경매장 및 임уществ처장의 전등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1억8천500여 원짜리 공사를 긴급입찰로 발주했다. 이 사무소 관계자는 “시장 내 전등이 높은 곳에 설치돼 있어 중도매인이나 이용자들로부터 어둡다는 민원이 제기됐었다”며 “전등의 종류를 두고 내부 논의가 계속되면서 상반기까지 기한이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車 전용 빛고을로…아찔한 오토바이
4일 자동차전용도로인 광주시 북구 동림동 빛고을로(서구 유촌동 26호 교통광장~북구 동림동 ICI)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운전자를 태운 채 승용차 옆을 이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다. 빛고을로는 지난 1일 오토바이·자전거 출입이 전면 금지되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됐다.
/위즈링기자 jrwi@kwangju.co.kr

‘아동학대’ 성빈여사 11명 징역·벌금형

광주지법 선고

법원이 아동복지시설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성빈여사의 전 사무국장과 생활지도사 등 관련자

11명에 대해 전원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승희 판사는 4일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성빈여사 전 사무국장 안모(여·42)씨

와 생활지도사 한모(여·29)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모여·30)씨 등 생활지도사 7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최모(여·26)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우한 어

린이들을 조직적으로 학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인들을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5년 7월부터 2년여에 걸쳐 성빈여사에서 보호 중인 원생들에게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건설사주 납치 전 조폭 간부

항소심서 무죄 선고

광주고법 “증거 부족”

광주 건설사주 납치와 ‘이용호 계이트’의 이용호씨 피습 사건 등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국제PJ과 전 간부 여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4일 폭력(단체구성)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폭력)단체 등의 구성·활동 ▲집단·흉기 등 상해 ▲집단·흉기 등 징금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씨가 2차례 폭력 사

건을 모두 지시했는지를 판단한 결과, 유일한 직접 증거인 사건 주도자들의 말을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나 수사보고 내용도 이들의 말이 진실임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해 8월 특정 재무부로부터 적법하게 지급제시된 액면가 7억4천만원짜리 당좌수표를 지급거래 처분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한 혐의는 원심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여씨는 2006년 11월 광주의 한 호텔 사무실에서 모 건설회사 사주 공모(48)씨를 납치·강금토록 하고, 2007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 중이던 이용호씨를 피습하도록 조작폭력배들에게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내용참 7821
김종득



60대 여 지게차 치여 숨져

광주동부경찰은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최모(69)씨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10분께 광주시 동구 수기동 광주일고 앞 길에서 지게차를 몰고가자 김모(여·62)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

자살 기도 남녀 위치추적으로 구조

쌍녀팔 ○경찰이 자살을 기도하려던 남녀 대학생 2명을 공중전화 위치추적으로 찾아낸 뒤 무사히 구조해 눈길.

○4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여·23)씨가 이날 오전 9시1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모 수퍼 앞길에서 공중전화로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또 다른 대학생 B(23)씨와 자살을 하겠다”며 자신의 집에 전화를 걸어왔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은 뒤 곧바로 형사 등 30명을 동원, 3시간 동안 현장 수색에 나서 공중전화 인근에 위치한 모 PC게임방과 S모텔에서 A씨와 B씨를 찾았다.

○경찰은 이들이 빌린 텐터카에 연탄 화덕과 연탄, 테이프 등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 이들이 동반자살을 기도하려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우울증 한의대생

아파트서 투신 숨져

4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 10층에 사는 모 대학 한의대 2학년 김모(25)씨가 1층 화단에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

다.

경비원은 경찰에서 “김씨가 아파트 밭코니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갑자기 1층 화단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숨진 김씨가 3년 전부터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